



보도시점 2024. 8. 20.(화) 11:00 배포 2024. 8. 20.(화) 09:00

검역본부, 블루팅 및 아프리카마역 발생 대비 지자체 진단교육 실시

- 시도 가축방역기관 12개소 대상 블루팅 및 아프리카마역 이론·실습 교육 진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진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신종 전염병인 블루팅과 아프리카마역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8월 12일, 14일에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국내외에서 신종 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전국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진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질병의 주요 증상, 전과경로 등의 이론 교육과 실질적인 기술 습득(유전자 진단, 판독)에 중점을 둔 실습 교육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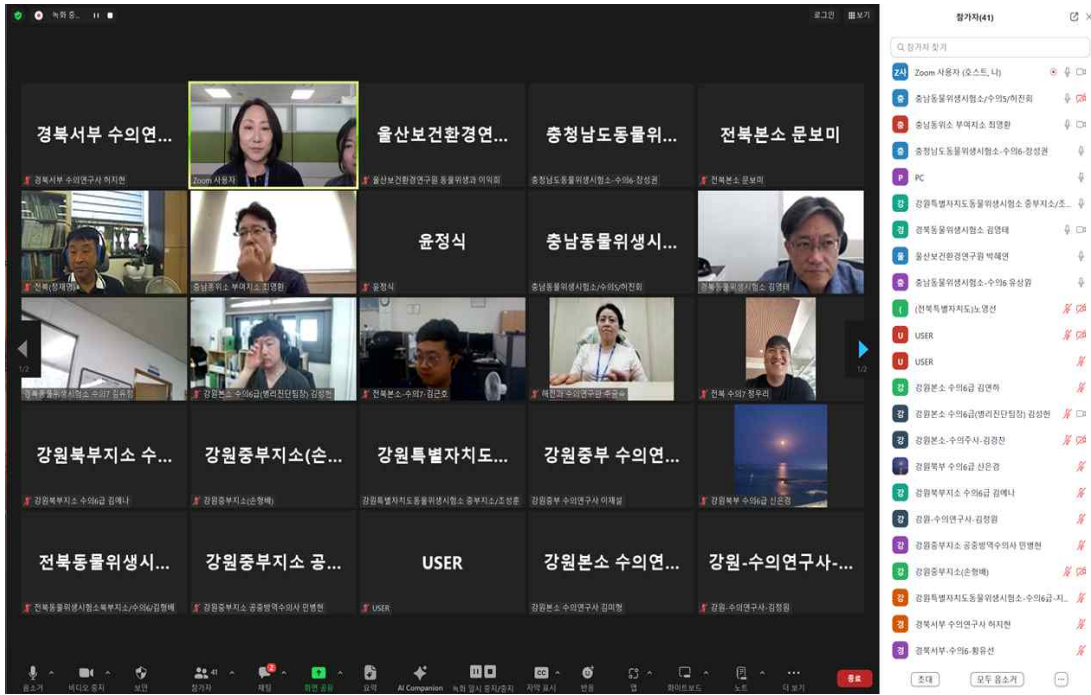
블루팅과 아프리카마역은 아프리카 토착 질병이었으나, 최근 유럽, 아시아 지역 등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로의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국제 질병 진단 숙련도 평가 참여 등을 통해 질병 진단 체계 구축과 함께 진단 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해은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은 “신종 전염병의 조기진단과 신속한 대응은 가축 방역의 핵심 요소로, 이번 교육을 통해 각 시도 방역기관의 진단 및 대응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질병 발생 시, 선제 조치를 위해 진단 체계를 잘 갖춰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동식물위생연구부 해외전염병과	책임자	과 장	강해은 (054-912-0857)
		담당자	연구관	노인순 (054-912-0843)

붙임

블루팅 및 정밀진단 이론 및 실습 교육 사진



이론(온라인) 교육



실습 교육